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어머니

- 대전성모병원 -

의사

- 박 OO 68/ F
- 왼쪽 흉벽 통증 주소로 내원함.

- Hx : 1996년 충남대에서 설하선암 진단 받고 수술 시행 받은 분으로 2008년 본원 내원 왼쪽 폐, 흉막, 갈비뼈 전이 진단.

- 2008.3~4 2nd line CEA CTx 2008.4~5.25 3rd line carboplatin-paclitaxel CTx PD
- 2008.5 통증악화로 thoracic paravertebral block
- 2008.12 왼쪽 다리 심부 정맥 혈전증 진단 와파린 2mg 복용
- 2009.6.24~7.24 왼쪽 갈비뼈전이 및 통증 악화로 4000cGy/16fx로 고식적 방사선 치료 시행
- 2009.8.11 한차례 더 nerve block 시행환자 2차례 항암치료에도 전이 더 진행하고 암성통증으로 방사선 치료 및 2차례의 신경차단술시행 하였으나
- 2011.5.6일 통증 악화되어 내원

- Performance status : ECOG 2~3

- 통증양상 : 부위는 왼쪽 흉벽, 체성 동통, 간헐적으로 발생, VAS 7점

- 이학적 소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안정

- 검사실 소견: 특이사항 없음

- 문제 목록

- #1. 왼쪽 흉벽 통증 흉막으로 압전이 악화 및 갈비뼈 전이로 인한 뼈통증
- #2. 심부정맥 혈전증

- 계획

1. 기본혈액검사와 영상학적 검사
2. 통증 조절 -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차단술 시행
3. 와파린 용량 조절

- 경과

- 환자 내원하여 시행한 CXR에서 전이 더 악화된 소견 보임
- 2011.5.9 통증의학과와 협진하여 T 10 lesion에 대해 신경 차단술 시행
- IV 모르핀 제제를 사용 통증 조절되어 퇴원고려 하였음.
- 2011.6.1 환자 퇴원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열 발생하면서 산소수치 유지 안되는 소견 보여 시행한 CXR에서 폐렴소견 보여 항생제 치료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 2011.6.3 1시 32분 사망함.

간호사

▶ 신체 사정

- 의식 : 명료
- 식이형태 : 정상식이
- 피부 : 건조하고 부분적인 각질 있음
- 배변 : MGOH 약 복용하고 있으며 2일에 한번 정도 배변함
- 배뇨 : 자연배뇨
- 활동 정도 : ECOG 2점
- 수면 : 4~5시간 /1일(불규칙적)
- 의사소통 : 원활

▶ 통증 사정

- 부위 : 왼쪽 가슴, 옆구리의 통증
- 양상 : 묵직하게 쑤시는 듯한(불특정하게)
- 강도 : 입원 초기 평가 시 NRS 3점 통증 시 NRS 5~6점

▶ 심리 사회적 사정

불안한 모습과 행동이 자주 관찰되며 주 간호자인 둘째 아들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으며 자리를 비울 시 더욱 불안한 모습 보임. 젊은 시절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가족 외엔 지지해주는 사람 없음.

▶ 간호 진단

1. 악성종양과 관련된 통증

- 사정 : 왼쪽 가슴, 옆구리의 통증, 불안정한 모습, 피로, 우울한 모습 보임
- 양상 : 묵직하게 쑤시는 듯한(불특정하게)
- 강도 : 입원 초기 평가 시 NRS 3점(통증시 NRS 5~6 점, 임종전 NRS 7~8 점)
- 계획 및 중재
 - 통증, 심리적,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대상자

- 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통증의 증상을 사정한다.
-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사정한다.
- 통증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 이완 또는 심상요법과 같은 비 침습적 통증경감요법을 사용한다.
- 평가 : 지속적인 통증으로 통증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 및 지속적인 정서적지지 시행

2. 의미 있는 대상의 상실과 관련된 예견된 비탄

- 사정
 - 6월 1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호흡 곤란 및 의식저하, 활력징후
 - 불안정으로 퇴원 취소되며 임종 방으로 이실함. 주 간호자의 죄책감 표현.
 - 주 간호자의 수면 양상의 변화 6월 3일 01시 32분 임종
- 계획 및 중재
 - 의미 있는 대상자의 죽음에 관한 느낌을 표현한다.
 - 가족이 슬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환자와 가족이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지지한다.
 - 다학제 팀으로 임종환자 및 가족을 돌본다.
 -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다른 대응기전을 사용한다.
 - 간호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킨다.
- 평가 : 딸, 며느리, 아들과 함께 임종기도를 하였으며, 사후간호에 함께 함. 딸은 처음에는 많은 울음과 아쉬움을 표현하였지만 임종 후에 하느님 옆에서 편안하실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여 주었음. 아들은 임종 후 6월 4일 장례식장 방문함.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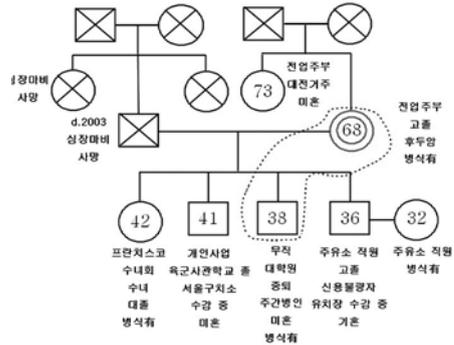
▶ Information Gathering

- 성명 : 박 OO
- 성별/연령 : F/68
- 주소 : 대전시 중구 부사동
- 주거 형태 : 월세(보증금 1,000만원/월 18만원)
- 종교 : 천주교(모니카)
- 결혼 상태 : 사별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 직업 : 전업주부
- 의료 보장 : 건강보험(지역-18,720원)
- 장애 유무 : 無
- 입원일 : 2011. 5. 06
- 호스피스병동 : 2011. 6. 3.(임종)
- 발병일 : 1996. 1 침샘암 진단 후 충남대학교 병원 op.

▶ Personal History

-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음.
- 24년 전(1987년) 환자가 계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계주가 깃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로 환자가 금전적인 책임을 다 지게 되어 환자 가정에 피해를 입었음(당시 아파트 1채 수준).
-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해서 금전적 피해를 많이 입어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켰음.
- 최근까지도 부채 상환의 독촉 우편물과 채권자가 찾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입원 전 부채 해결을 위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음.
- 암 발병 후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호스피스 병동 입원 전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함.

▶ Family Background



▶ ASSESSMENT

심리사회적 평가

- 환자 성격 :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싫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함. 발병 후 발병전보다 예민해지고, 둘째 아들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했다고 함.
- 딸 성격 : 활발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음.
- 첫째 아들 성격 : 자기주장이 강한 편이며, 다혈질적인 성격이라고 함.
- 둘째 아들 성격 :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환자 암 진단과 간병역할을 하면서 내성적으로 바뀌었다고 함.
- 셋째 아들 성격 :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함.

지역사회자원 연결 문제

현재 간병역할을 환자 둘째 아들이 24시간 동안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체적, 정신적 소진 될 가능성이 있음.

기타 문제

환자 자녀들이 장례절차에 대한 상의가 어려운 상황

으로 장례절차 계획의 어려움. 환자 임종 시점에서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소식전달 어려움.

▶ Care Plan & Intervention

심리사회적 개입

통증 발생으로 인한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

- 병동요법 안내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향후 요법 참여 및 자원봉사자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음.
- 통증이 심해 질 경우 의료진이 적절하게 대처함을 설명하였고, 통증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안감을 완화하였음.

둘째 아들의 환자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 환자 형제인 딸과 역할을 분담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상의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음.
- 부양자 역할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호스피스 팀원들이 역할 부담을 덜어 줄 있고, 함께 상의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
- 둘째 아들의 환자 발병 이후 간병역할 수행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무력감.
- 그 동안 환자 간병역할 수행에 대하여 격려를 통하여 심리적 지지를 하였고, 향후 인생 계획에 대해 확인 한 결과, 현재 사이버강의(사회복지)를 통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로 심리적 지지를 하였음.

경제적 문제

현재 가계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진료비 마련에 어려움.

- 마텔암 재단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200만원)을 통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고, 장제비 지원(50만원)을 통하여 발생된 부담을 덜어주었음.

지역사회자원 연결 개입

간병역할 수행으로 인한 둘째 아들의 소진.

- 교보다솜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간병인 지원을 통하여 간병역할 부담을 덜어주었음.

기타 개입

환자 자녀들이 장례절차에 대한 상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장례절차 계획의 어려움.

- 환자 딸과 상의해서 결정 할 수 있게 하였고, 필요 시 장례식 이용 및 납골당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환자 임종 시점에서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소식전달 어려움.

- 현재 환자 첫째 아들은 구치소, 셋째 아들은 유치장에 있는 상황으로 필요한 상황 시 소식을 전달함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기관이나 경찰서에 문의하여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제공 하였음.

사회사업가 제언 (Social Work's Proposal)

긍정적인 점

- 환자 둘째 아들과의 라포(Rapport)형성 및 대한 심리적 지지
- 장례절차에 대한 설명 및 준비
- 환자 임종 후 첫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연락 할 수 있는 방법 설명
- 경제적 지원(의료비, 장제비)을 통하여 부담감 완화

개입 미비

- 환자 둘째 아들 외에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 부족
- 환자의 심리상태(현재 상황 수용 여부) 파악과 이에 대한 개입 부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저희 자원봉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입원 다음날 5월 7일(토요일)이었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계셨고 눈을 감고 있다가 뜨셨다.

앉으시려고 하여 부축하여 도와드렸다. 마사지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운은 없으신 데도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어드릴 때는 한손을 가슴에 대신다.

주로 둘째 아드님이 간병을 하며 환자 곁에 서계시는데 앓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서성이신다. 문창동 신자라면서 반가워하신다. 그러나 조용하여 말씀이 거의 없으신 편이다. 저희들이 환자가 가까이 가면 일어나서 앉으시려고 하여 도와드리기도 하며 등과 어깨 마사지를 하여 드렸다.

5월 중순에는 밤에 땀이 많이 나서서 못 주무셔서 편치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해드리니 조금 안정을 찾으시고 편안하게 계신다. 따님이 조테레사 수녀님이신데 지난 16일 오신다고 하시면서 기다리신다. 가끔 왼쪽 어깨를 아파하시고 주로 앉아계시는데 수첩에 뭔가를 적고 계실 때도 있다.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으면 얼굴에 미소로 답하실 뿐 아무 말씀도 없으신다. 대화중에 본인은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시어 하느님 사랑에 대해 몇 마디 말씀드리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르쳐드리기도 하였다. 23일에는 문창동 본당에서 신부님과 수녀님 오셔서 병자성자를 주셔서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앉아 계셨다.

6월 1일 전날 밤부터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셔서 산소마스크를 하고 계셨고 가래소리가 들려서 숨쉬기도 편하지 않아 보였다.

임종 방으로 옮기셔서 임종 기도와 성가 불러드리고, 딸 수녀님이 오셔서 둘째 아들과 함께 기도도 해드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 조용하게 미소 띤 얼굴로 앉아계시며, 기도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 귀 기

울어 들으시고 기도를 좋아 하셨다. 그리고 왼쪽 어깨와 팔이 아프다고 하셔서 마사지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 화장실도 부축하여 다니시면서 자존심을 유지하시는 모습과 기운 없는 모습을 볼 때면 안쓰럽기도 하였다. 어려움 중에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이 어색하시며 말붙이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가끔 아픈 것도 잘 참아내셔서 그런지 항상 얼굴이 힘들어 보이셨다. 인내하시는 면을 보면서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잘 참아내시는 모습에서 많은 인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신 분이셨다.

